특기 별고 〈32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69세 ; 명종 원년(1546년, 병오년, 명 세종世宗 가정嘉靖 25년) 8월에 대간(臺諫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선생의 모든 직첩(職牒)을 빼앗도록 하라는 계(啓)를 두 차례나 올렸다. 그해 8월 10일(갑오) 4번째 기사에 사헌부가 충재 선생에게 벌을 청하면서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橃)은 늘 유인숙(柳仁淑)을 호걸지사(豪傑之士)라 칭하면서 친분과 왕래가 딴 사람과 달랐으니, 역모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숙이 죄받을 즈음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진달하였으므로 파직에 그쳤습니다. 물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라고 하였다.

선생의 70세 때(명종 2년 ; 1547년, 정미년) 9월 18일에 양재역(良才驛;당시 경기도 광주 ; 현재 서울 서초구) 벽서(壁書) 사건이 일어났다. 곧 정미사화이다. 그 벽서의 내용은 당시 국정을 비난하면서 '여주(女主 ; 문정왕후)가 위에서 집정(執政 ; 수렴청정 垂簾聽政)하고 간신 이기(李芑, 1476-1552) 같은 자들이 밑에서 정원을 농락하고 있으니, 국가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을 한 자리에 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仲秋月) 그믐날.'라고 씌어져 있었는데, 홍문각 부제학 정언각(鄭彦慤, 1498-1556)이 벽서를 발견하여 명종에게 올렸다.

그 당시, 즉 을사사화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오래비인 윤원형과 이기를 '이흉(二凶)'이라 하고 정순붕(鄭順朋, 1484-1548), 임백령(林百齡, ?-1546), 정언각을 '삼간(三奸)'이라 불렀다. 이 때 문정왕후는 이기와 정순붕을 불러들이고 이 벽서를 내보였다. 그러자 정순붕이 "아직까지 사악한 논의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건대 이 벽서 역시 무식한 자의 소행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처음부터 죄인들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 라고 하여 乙巳士禍 때 아직 살아남은 관료와 선비들을 죽이려 벼르면서, 곧 형벌을 내려야 할 명단을 적어 대궐로 들어갔다. 이 때 충재 선생은 처음에 구례현(求禮縣 ; 남쪽 전라도, 남원과 곡성 근처)에 부처(付處)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가 다시 태천군(泰川郡 ; 평안도 운산과 영변 근처)으로 유배령이 떨어졌다. 선생은 태연히 선영에 참배하고 길을 떠나 용안역(用安驛)에 이르니, 의금부 관리가 안동 쪽을 향하여 급히 내닫는 것이 보이자 일행이 깜짝 놀라 울부짖으니, 충재는 정색을 하며 이를 꾸짖었다. 금부도사가 이르러 삭주(朔州;평안도 압록강 중하류변 ; 현재 수풍댐이 있는 곳)로 이배(移配)되었음을 알렸다. 당시 이기는 반드시 충재 선생과 회재 이언적을 죽이려고 경연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 오히려 간사하게 이기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의 향후 매명과 권세를 위해 문정왕후에게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둘을 죽여서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기의 주장에 대해 문정왕후의 반대로 살아남게 되었다.

이 때 선생의 아들 권동보(權東輔, 1517-1591, 호는 청암靑巖)가 관직에 매여 서울에 있었던 관계로 충재는 편지를 써서 경계하기를 "옛적(중국 북송 때)에 범충선(范忠宣, 북송 때 재상, 본명은 범순인范純仁, 충선은 시호. 오현인吳縣人, 자는 요부堯夫. 재상인 범중엄范仲淹의 차자. 상서복야尙書僕射, 중서시랑中書侍郞. 장돈章惇의 모함으로 영천으로 유배당함. 휘종徽宗 때 관문전觀文殿 대학사)도 나이 70에 만리 바깥으로 유배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너의 아비가 받은 죄벌은 아주 관대한 은전이라 할 수 있으니, 너는 이 일을 한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다만 40년 동안이나 나라의 큰 은혜를 입고서 짊어진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죽더라도 장례를 박하게 지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때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 1484-1548)이 충재의 유배 길에 나와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하면서 한참동안 흐느꼈는데, 충재가 말하기를 "생사와 화복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떠났다. 탄수는 1504년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연좌되어 귀양을 갔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생원시에만 합격하고 재야에서 학문정진과 후배양성과 제자 육성에만 전념하여 대과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종 때 현량과(賢良科)에 등용되고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때 조광조를 천거하였다. 기묘사화 때 죽을 번하였으나 면하고, 충재 선생의 절친한 지우인 음애(陰崖) 이자(李耔) 등과 산수를 벗하며 낚시를 즐겼다. 제자로 노수신, 이준경, 강유선, 심건 등이 있다.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되고 시호는 정효(貞孝)이고. 팔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충재 선생의 유배 행렬이 경기도 벽제역(碧蹄驛;파주)에 이르렀을 때, 회재 이언적도 또한 강계(江界, 평안도 압록강의 지류인 독로강변)로 유배 길을 떠나는 길이었다. 충재 선생은 자조적으로 여유 있게 "李貳相 이이상(찬성)과 권이상의 행차가 일시에 이뤄지니 어찌 이토록 빛나는(혁혁赫赫)가?"라고 하였다. 끝내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떠났는데 그 길로 영영 이별이었다. 여기에 대한 퇴계 선생의 충재 선생 행장(行狀)에 보면, 먼저 탄수가 회재를 만나보았는데, 회재는 몹시 우울한 기색을 보이면서 국가의 위급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였다. 또 충재를 만나보니 "이찬성과 권찬성……" 이 이야기를 하며 조금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탄수가 이 일을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회재는 나라 걱정을 잊지 않고, 충재는 생사와 화복을 다 잊었으니, 두 분 다 어떤 경지에 이른 분이다."라고 하였다("燃藜室記述"제10권)

〈다음호에 계속〉

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중춘(仲春)에 동·서·남·북의 별자리는 각기 그 바른 위치를 얻는다. 여름에는 남방칠수(南方七宿)의 주조(朱鳥)가 유전(流轉)하여 화수(火宿)가 중성이 되고, 가을에는 화수(火宿)가 자리를 옮기니 허수(虛宿)가 중성이 되며, 중동(仲冬)에는 서방칠수(西方七宿)의 묘수(昴宿)가 중성이 되는 것 등은 천도(天道)가 어긋나지 않음이다. 지금은 동지 때 북방의 별자리가 오방(午方)에 자리하고, 서방의 묘수(昴宿)는 그 동쪽에 위치한다.

점차 편차가 오래되면 묘수(昴宿)는 봄철의 중성으로 화수(火宿)는 가을철의 증성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점점 차이가 나서 화수(火宿)는 동지 때의 중성이 될 것이니, 천지(天地)의 기운이 거꾸로 바뀌는데 이르지 않겠는가? 이것이 천지에 끝과 시작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이십팔수(二十八宿)가 하루에 일주천(一周天)함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며 일년에 일주천(一周天)함은 일년의 시작과 끝이며, 일원(一元)에 일주천(一周天)함은 일천지(一天地)의 시작과 끝이다. 이로써 생각해 본다면, 천지(天地) 개벽(開闢)의 처음 갑자(甲子) 야반(夜半) 동지(冬至)의 때에, 사방위(四方位)의 별자리들이 비로소 그 방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남방의 주조(朱鳥)는 실은 동짓날 저녁 무렵에 남중한다. 점점 세차가 발생하여 요 임금때에 이르러서 주조(朱鳥)는 또 자리를 옮겨 춘분날의 저녁 무렵 남중하는 별자리가 되었다.

사방위의 별자리가 비록 개벽(開闢) 때에 처음 나타난 방위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지만, 봄철은 사계절의 선두요 동방은 사방위의 머리이다. 개벽 때에 동방의 별자리는 계절로 겨울이요, 방위로는 동쪽에 있으니, 계절과 방위가 그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요 임금 때에 이르러 동방의 별자리가 비로소 그 계절로써 그 방위에 더해지니, 천지의 기운이 가장 바름을 얻어 문명(文明)의 기회를 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이보다 더 성한 때가 없었으며, 뒤에도 이에 미칠 수가 없으니, 이 때를 천세만세토록 성인이 다스린 으뜸으로 삼는다. 그 하늘을 관측하여 때를 알아내고, 또한 분명(分命)한 것은 요 임금이 천도(天道)가 자신의 시대에 이르러 변하였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에 새로운 근원을 창조하고 및 역법(曆法)을 바꾸어 새롭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중(羲仲)과 희숙(羲叔)에게 나누어 명령한 글 가운데 "일중성주이은중춘(日中星鳥, 以殷仲春) 등의 말이 있다. 이 대목은 희화(羲和)에게 주조(朱鳥)의 별자리가 남중한 때가 과연 중춘에 적합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 적합한지를 살피서 증험(考驗)케 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역범[新曆]을 만들고 살펴서 증험하게 한 까닭이므로 그의 말이 이와 같다.

만일 별자리가 주조(朱鳥)인 때 본래 중춘(仲春)에 나타났다면 어찌 다시 이러한 명령이 있었겠는가? 이것이 성인(聖人)이 "선천(先天)의 시기에 일을 할 때는 하늘은 뒤에 있어 성인이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후천(後天)의 시기에 일을 할 때는 상천(上天)의 뜻을 받들어 따른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6회 高麗大殿 大祭 奉行 예정

오는 10월 6일(금)·음 8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제6회째를 맞이하는 2012년 임진년 고래대전제가 고려역사를 선양하는 왕과 충신의 위업을 추모하고, 또한 겸해서 국태민관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大祭)가 봉행될 예정이다.

우리 권문(權門)의 선조님은 고려초 개국공신인 시조태사공(始祖太師公) 휘 행(諱 幸)으로부터 13世 국재공(菊齋公) 휘 보(溥), 14世 정헌공(正獻公) 휘 후(煦), 14世 사복제(思復齊) 휘 정(定), 15世 밀직공(密直公) 휘 중귀(重貴), 15世 영가군(永嘉君) 휘 상좌(上佐)등, 여섯분에 배향되어 함께, 봉행(奉行)될 예정이오니 국내외족친모두는 많이 참제 하기를 바라맞이 않는다.

또한, 이곳은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30분정도 달리다 보면 오른쪽 산비탈 위로 거대한 한옥구조로 되어있다. 고려 통일대전은 고려시대 60여개 성(姓) 받은 120여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려대전(高麗大殿)은 고려역사를 재조명하고 당시 충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다. 왕들의 위패를 모신 정전(正殿) 충신공신의 위패를 충·공신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고려 역대 인물들의 문집, 유명화, 금석문, 탁본, 문중의 족보 등이 전시되어 있다.

孝行에 대한 孝文化 여러 생각

■權 貞 澤 (成均館 典儀 兼 典禮士)

2007년 7월 2일 오후 4시 30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孝行)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하여 다음날인 2007년 8월 3일 그 시행령(施行令)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며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되어 이래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서 수천 년 인습으로 내려오던 효문화(孝文化)를 법률(法律)로까지 제정하여 강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지심(自激之心)이 들기도 한다. 한편 이렇게 실정법으로 묶어서라도 우리 전통문화의 높은 도덕적 가치인 효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위정당국의 충정에는 십분 이해가 간다. 하기야 왕조(王祖) 시대 충효(忠孝)를 지고의 도덕률이자 실정법으로 삼아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삼엄히 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법제는 권장성의 도덕률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선도(善導)한다 할 수 있는 각급 종교도 효의 가치를 알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행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인의 도덕관은 논리적이고 인생관은 불교적(佛敎的)이며 행동철학은 또 기독교적이라는 말도 있다. 유교의 중심사상은 인(仁)에 두고 있지만 그 논리적 기본은 효에 있다. 효는 백행(行百)의 근원(根源)이라 하여 백 가지 행실이 이 효에서 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자(孔子)와 그 제자 증자(曾子)의 문답을 요약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효경(孝經)은 유교의 여러 경전 가운데 오로지 이 효행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첫 구절이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이 효지시야(孝之始也)」라 하여, 내 몸의 터럭과 살갗이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를 감히 다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행의 시작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가지고 조심하고 부지런히 힘써 입신양명(立身揚名) 몸을 세상에 드러내 세워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하였다. 또한 공자의 말씀으로 「교민친애(敎民親愛)는 막선어효(莫善於孝)요 교민어순(敎民於順)은 막선어제(莫善於悌)」라 하여, 백성을 교화하여 어버이를 친하게 함에 효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백성에게 예절과 순종을 가르침에 공경(恭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한 말이 효경에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은 청소년에게 윤리 교육을 먼저 시키기 위하여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서 추려 지었다는 설이 있는데 「효어친(孝於親)이면 자역효지(子亦孝之)이니 신기불효(身旣不孝)면 자하효언(子何孝焉)이리오. 효순(孝順)은 환생효순자(還生孝順子)요 오역(忤逆)은 환생오역자(還生忤逆子)니라」 하는 말이 있다. 즉 내가 어버이께 효도(孝道)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내가 이미 불효했다면 자식이 어찌 내게 효도하게 되리오. 효도하고 순종하면 다시 효도(孝道)하고 순종(順從)하는 자식이 태어나고 어버이께 거스르면 다시 내게 거스르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라 한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서 효를 살펴보면 인욕경(忍辱經)에서 효(孝)를 선(善)의 극치, 불효를 악(惡)의 극치로 보고 있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는 어버이 은혜가 산고(産苦)를 감내하는 데서부터 자식은 마른자리에 가려 뉘고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며 자식을 위해 악업을 거듭하는 은혜. 출산할 때 3말 3되의 피를 흘리고 8섬 4말의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恩惠) 등을 생각하며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선지자(先知者)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十誡命)이 내려 돌에 새겨졌는데 그 제5계명에서 '네 부모(父母)를 공경(恭敬)하라' 하고 있다. 이러한 10계명의 5계명이 둘째 돌판의 첫번에 기록됨은 매우 중요한 일로 첫째 돌판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원리를 밝힌 내용이다. 그리고 둘째 돌판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의 생활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5계명이 첫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륜(人倫) 중에서 효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를 두어 순종(順從)하고 사랑하며 공경(恭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선현(先賢)중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은 모두 효가 그 생애의 근저에 깔려 있었다. 고려(高麗)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야은(冶隱)길재(吉再)가 원래 대효(大孝)이고 그러한 효 때문에 또한 불사이군(不事二君) 지조(志操)를 지킬 수 있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아동의 교과서를 마련한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그 사친장(事親章)에서 효를 강조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와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나 전쟁중에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면서 효를 다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의사(義士) 안중근(安重根), 백범(白凡)김구(金九) 등 우리 역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인물은 거의 다 그 삶의 바탕에 효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이는 효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항심(恒心)을 삼아 이를 실행(實行)하면 심성(心性)이 착해지고, 어버이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족을 우애(友愛)하며 그 같은 어버이와 가족(家族)이 지켜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國家)에의 충성(忠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효孝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나 양태는 달라지고 있다. 옛적의 효는 생사(生死)의 경계(境界)도 넘어 어버이의 사후에도 사사여생(事死如生)의 정신으로 섬겼다. 그 시작이 부모가 죽으면 하늘을 못볼 죄인을 자처하며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시묘(侍墓)살이를 함이었고 계절마다 시제(時祭)를 지내며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 묘제(墓祭) 등을 받들어 그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바침이 다음이었다. 고대에는 피난 중 어머니에게 구해다 준 음식을 대신 먹어 어머니가 아사지경이 되자 어린 자식을 생매장하려 했던 극한 상황의 비정한 일화도 있었고 부모 병환에 상분첨고(嘗糞甛苦)하며 임종에 단지수혈(斷指輸血)하는 것 등이 고전적인 효행(孝行)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시대의 효행(孝行) 규범(規範)은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이다. 종교마다 각기의 교리가 있고 신앙마다 그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종교건 어버이에 대한 인간의 효를 부정하거나 부모(父母)에 불효(不孝)를 교리로 하는 종교는 없다. 다만 그 발현하는 방법과 형식에서 다름이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과 형식을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동기간 또는 일가친척 간 불화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의 대명절(大名節) 추석(秋夕)과 설에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과반이 고향과 부모를 찾아 대이동을 한다. 이른바 '귀성전쟁(歸省戰爭)'이라고 까지 언론 등에 특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동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통지옥에 빠져 큰 고생을 하면서도 육친을 만나고 조상의 선산(先山)을 둘러보기 위한 일념이 그들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제 근본을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우리는 사실 선대에 조상이 있었기에 존재하고 또한 우리 후손도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나며, 우리가 지금 영위해 가는 삶에 따라 그들이 살아갈 모습도 결정되는 것이다. 예부터 부자자효(父慈子孝)라 했다. 부모는 자애로 기르고 자식은 효도(孝道)로 보답(報答)함을 말한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애로 기름에 있어 그 자애에는 가이없지만 또한 거기에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르는 교육의 엄격함이 따른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패려궂지 않고 집안에서 불효하지 않도록 신칙하며 고쳐 기르는 것이 이른바 가정교육이고 자녀교육(子女敎育)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자라는 게 콩나물이고 제일 어렵게 자라는 식물이 연이라 한다. 그렇게 늦게 자라는 연의 뿌리에는 구멍이 9개가 있어 그 뿌리로 오탁한 하수 방죽 진흙탕의 오염을 정화시키고 너른 잎으로 물밑바닥의 더러움을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우아하고 순결한 꽃을 피워낸다. 사람이 세상에 사람의 자식(子息)으로 태어나 이러한 연꽃과 같이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자식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고 한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인성교육(人性敎育)도 안 되어 자기 하나만 알기 때문에 사회(社會)에 적응을 하기 쉽지 않다. 이는 유 무식과도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흔히 많이 배운 자식이 불효(不孝)하고 덜 배운 자식이 효도(孝道)한다는 말이 회자(回刺)되고 있다. 예부터 못난 자식 효도(孝道)보고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정말 똑똑하고 잘난 자식은 효도부터 잘할 것이다. 그래야 또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고위공직(高位公職) 후보자(候補子)의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의 온갖 자질은 다 검증하면서 유독 효불효(孝不孝)에 대해서는 캐고 묻는 광경(光景)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역대(歷代) 대통령(大統領) 가운데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가 농어촌 출신이나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고초를 많이 겪고 이를 극복한 나머지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른 인물들이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장래로 보아서는 축복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속에서 곱게 자란 자식은 그 온실의 막이 제거되면 적응치 못하고 생존경쟁에서 퇴출된다.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 산다는 속담(俗談)의 진리(眞理)가 거기에 있다.

사람은 신(神)과 짐승의 중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답고 고상하게 처신하면 신에 가깝게 되고, 인성을 잃고 난폭해지거나 비굴하고 천박하게 행동하면 짐승에 가까워지게 된다. 사람은 사람다운 품위를 지니기 위해 여러 가지 가리고 제약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속박이라고 해서 당장 목전의 자유만을 위해 풀어버리면 혼란과 패륜이 만연한다. 그런데 2005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민법을 개정했는데 '친양자(親養子) 제도'라는 것을 채택하여 우리 사람의 성본(姓本)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혼난교亂婚亂交'가 만연하다 보면 동모이부(同母異父)나 동부이모(同父異母)의 친남매가 부부(夫婦)로 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부부(夫婦)가 그 부모(父母)나 조상(祖上)에게 할 효행(孝行)의 규범(規範)과 형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차세대는 어떤 형태의 효행(孝行)과 도덕성(道德性)을 규범(規範)으로 하게 될 것인가.